

미국장로교(PCUSA) 재정 · 교인 수 감소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PCUSA가 재정 문제와 교인 수 감소로 인해 2년마다 총회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전통을 축소 혹은 중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PCUSA 총회 서기인 J. 허버트 넬슨(Herbert Nelson II) 목사는 향후 총회가 규모면에서 과거 총회와 비슷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넬슨 목사는 최근 PCUSA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에서 “전국에서 모인 총대들이 대규모 장소를 빌려 6, 7, 8일을 보내는 ‘빅 텐트 총회’(the big tent General Assembly)를 계속 개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회 행사 규모 축소에 대해 지난 몇년간 진행된 PCUSA 교단의

상당한 교인 수 감소와 관련된 재정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PCUSA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적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넬슨 목사는 “이는 우리가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단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은) 교회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총회에 관해서는 정책 문제와 세상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면에서 훨씬 앞서갈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PCUSA에 소속된 많은 교회들은 교단의 신학적 입장 문제로 교단을



지난 2014년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PCUSA 교단 총회 모습. ©PCUSA 페이스북

탈퇴했으며 급격히 교세가 감소했다고 CP는 전했다.

지난 2000년 이 교단에는 약 250만 명의 교인이 소속돼 있었지만

2019년까지 그 숫자는 130만명을 조금 넘는 숫자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0년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이다.

CP는 이같은 교세 감소의 요인으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를 안수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등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었다고 분석했다. 성소수자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단의 조치에 반대하는 수백개의 교회는 PCUSA를 떠나 신학적으로 더욱 보수적인 장로교에 가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지난달 PCUSA는 예산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21년 총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미국교회 20%, 코로나19로 1년 6개월 내 영구 폐쇄될 수 있어”



©Pixabay

미국 내 교회들 가운데 20%가 코로나19 폐쇄 조치로 인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바나그룹(Barna Group) 데이비드 킨나만(David Kinna-

man) 대표는 최근 NPR과의 인터뷰에서 “6개월 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교회들이 정부의 폐쇄 명령에 꽤 순조롭게 대응했으나, 현재는 일부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킨나만 대표는 “주정부의 폐쇄 명

령이 느슨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다시 열었으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교인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올 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년 6개월 안에 5개 교회 중 1개 교회가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두 달, 두 달 반 전의 자료에 근거해 오늘날 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본다”고 했다.

킨나만 대표는 “헌금과 관련된 혼란은 그 모든 것만큼 중요할 수 있다. 심지어 다시 문을 연 교회들도 훨씬 적은 수의 교인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단순히 교회를 재개하는 일이 당신이 겪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적 도전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회자들 안에 ‘교회가 대우행에서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한 가지 변수였는데, 앞서 목회자의 70%가 ‘매우 자신 있다’고 한 반면 최근에는 58%가 ‘매우 자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킨나만 대표는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미국인들의 교회 참석 및 교회 기부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원인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분명히 모든 교회가 다시 문을 연 후에도 온라인 예배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이고, 이 디지털 교회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 같다. 또 지역교회에 헌금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교회는 예배 참석자들 뿐 아니라 이 공동체에 가져다 주는 가치를 더 크게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 내 다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폐쇄 조치로 큰 경제적 타

격을 입었다. 예를 들어, 연합감리교회(UMC)는 지난 4월 한 달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헌금액이 26%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UMC 재무행정 책임자인 릭 킹(Rick King)은 이에 대해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일반적인 교회 재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 준다”면서 “3월에는 작년 동기에 비해 소폭 감소를 보였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서부 해안 지역의 관찰 구역에서 이를 더욱 느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가 약 1,0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월 중순 이후 거의 2/3의 교회에서 헌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감소율이 10~20% 이상인 교회는 전체의 34%였으며, 30~50%인 교회는 전체의 22%, 75% 이상인 교회는 9%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캘리포니아 주 법원, LA시의 교회 폐쇄 명령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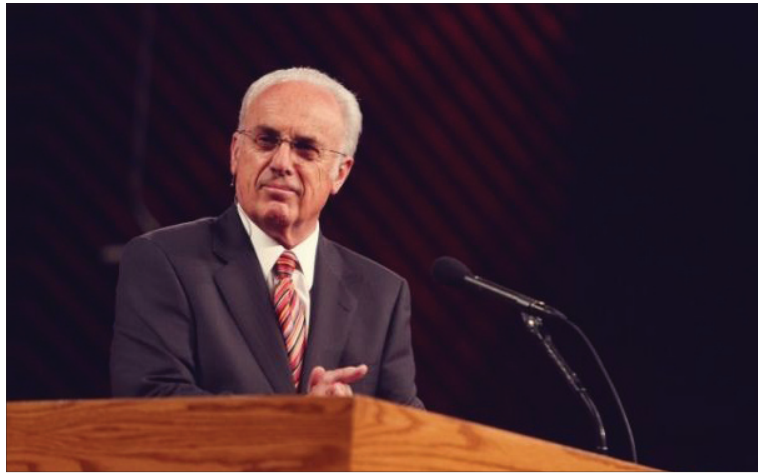
미국 LA시가 존 맥아더 목사가 담임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령’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신청했으나 다시 한번 거절됐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첼 베클로프(Mitchell Beckloff)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는 25일 LA시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판사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접근 명령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교회측 변호를 맡은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 특별검사 폴 조나(Paul Jonna)는 LA시가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절차적·실질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며 이를 판결한 법원에 찬사를 보냈다.

조나는 “이번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시키고자 그들이 법원의 명령을 받으려 시도한 네 번째 실패”라며 “이어질 소송에서 헌법이 보장한 교회의 권리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맥아더 목사를 비롯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LA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되어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시 관계자들은 그동안 교회의 현장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맥아더 목사와 교회는 교회 폐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존 맥아더 목사. ©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4주동안 주일 실내 예배를 유지했고 주 정부와 시는 두 차례에 걸쳐 교회 폐쇄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제임스 살판트 판사는 LA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회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공판일 전까지 실내 예배와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맥아더 목사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LA시가 신앙이 요구하는 활동을 범죄화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그러한 제재를 받을만한 실제적인 건강상의 위협이 없었다”며 캘리포니아와 LA시의 반복적인 교회 폐쇄 명령에 대해 “불법적인 권력 오남용(illegitimate misuse of power)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코로나 시대 한인들 모두 위로와 격려 필요해”

한인기독교상담소 한국어 온라인 무료 상담 시작



월드미션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가 온라인을 통한 무료 상담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그동안 비대면 상담을 준비해 온 한인기독교상담소는 모든 상담을 Zoom 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인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재개했다.

한인기독교상담소는 “그동안 시

간적, 지역적 제한으로 상담이 필요해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코로나 상황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국어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불화 등이 급증하고 있어 모두가 위

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줌(ZOOM)에 접속해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으며, 신청과 문의는 전화 213-388-1000 으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과 디렉터 청빙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선교학과 디렉터를 청빙한다. 지원 자격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선교학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선교현장 유경험자이며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한 자다.

제출서류는 영문 및 한글 이력서, 교수 및 목회자 추천서, 최종 학위증(원본), 대학교 학사 이후 모든 학위 과정 졸업증명서(원본), 대학교 학사과정의 비전 소개서다. 원본을 제출하면 지원자에게 반환한다. 제출 마감일은 2020년 10월 2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1차 서

류 심사 후 선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로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다.

지원 서류 제출 및 문의는 이메일 rbkim@pts.edu 혹은 전화 562-926-1023, ext. 303(김루빈 교무처장)으로 하면 된다.

한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1977년 설립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에서 복음주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선교지향적 학교로 자리매김 해온 미주장을 포함 한 모든 학위과정 성적 증명서(원본), 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선교학과 디렉터로서의 비전 소개서다. 원본을 제출하면 지원자에게 반환한다. 제출 마감일은 2020년 10월 2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1차 서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첫 번째 신앙고백 미니앨범 'This is my' 발매

나성영락교회 최경욱 목사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찬양 되길”

최근 'This is my'라는 미니앨범을 발표한 나성영락교회 최경욱 목사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다. 최 목사는 집안의 영향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대중힙합가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몸과 마음이 무너져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며 목사 안수를 받고 찬양앨범까지 발표했다.



불교집안에서 자라 대중힙합가수로 활동하다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목사가 되었다는 험블비 최경욱 목사. 현재 엘에이 나성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험블비 제공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처음 유학생 시절에는 사실 음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길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면 목회자로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생소해하지 않고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이 되고 싶은게 제 목회적 소망입니다.”

-첫 번째 신앙고백 EP 앨범 'This is my' 를 내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8년 처음 예수님을 믿고 200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처음에는 음악에 관련한 활동들을 일체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찬양을 그 것도 랩으로 직접 만든 노래를 찬양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5년 즈음 처음 교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사역은 아동부 사역이었는데 그 때 랩으로 말씀 이야기를 만들어서 부르면 아이들이 재밌게 말씀을 접하겠다 싶어서 노래를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험블비라는 이름도 그 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혼자서 음악을 조금씩 만들다 보니 예기치 않게 코로나19를 겪게 되고 음악을 작업할 시간이 더 많아져서 노래를 만들고 정리하다 보니 앨범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EP 앨범 'This is my' 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미국 LA를 기반으로 복음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해서 첫번째 EP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단한 미국 생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찾아온 세상의 변화를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세상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대중적으로 주류 음악으로 자리잡은 힙합이라는 장르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두 7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이면서도 그리 어렵지 않고 멀게 느껴지지 않는 음악과 가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앨범을 만

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때문에 세상은 물론 교회 역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다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음악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없애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경건하게 느껴지지 않을 멜로디와 리듬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음악적인 시도를 통해 크리스천 음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만들게 되었습니다.”

-앨범을 만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이 노래를 만들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교사로 섬겨주신 Thomas Kang이라는 선생님께서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중이신데 이 노래를 위해서 믹싱과 마스터링을 흔쾌히 해주시고 또 고등부 학생 제작자인 Joshua Han, Stephen Han, Jefferson Suh, Ethan Chang 친구들이 피쳐링 및 뮤직비디오 디렉팅 그리고 앨범 커버 아트 작업을 도와 주었어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욱 목사님에게 주님은 어떤 분

인지, 언제 처음 교회를 다니시고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나셨는지 간증 나눠주세요.

“짧게 나누면 저는 원래 불교집안에서 자라서 사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2008년 즈음 제가 45알피엠이라는 힙합 그룹의 멤버로 가수 활동을 하던 중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고 힘들어 하던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삶을 돌아보고 순간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도 남은 평생이 후회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렇게 지금은 목사가 되어 힙합으로 찬양을 하는 전도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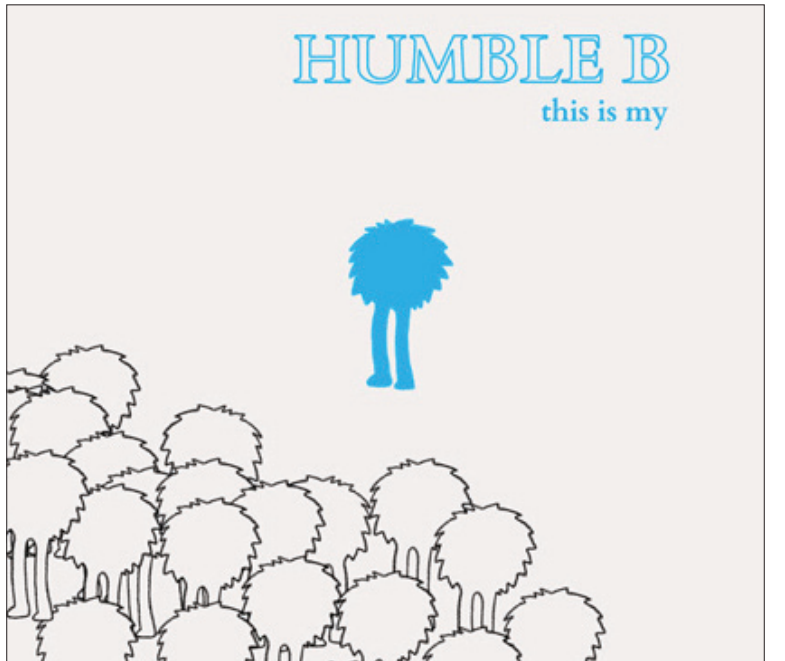
-크리스천 힙합 그룹 소울마켓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제가 풀러 신학교에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던 중 기독교 변혁학이라는 과목을 수업하는 중 같은 수업을 들던 JF Mark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버클리 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하였고 힙합음악도 좋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재를 나누던 중에 뜻이 맞아서 음반을 같이 준비하게 되었고 '소울마켓'이라는 이름은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을 위

한 영의 음식을 제공하는 마켓과 같은 음악을 하겠다는 뜻으로 만들게 되었고 2017년 3월에 함께 총 10곡으로 수록된 소울마켓 음반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소울마켓 타이틀곡 New Day 뮤직 비디옌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셨나요? 앞으로 목사로서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EP 앨범은 총 7곡으로 이루어진 앨범인데 제 신앙 고백과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담긴 노래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음악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힙합으로 찬양을 하는 것인데 이런 찬양을 하는 목사도 있구나 하시고 많은 응원과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웃음). 조성호 기자



최경욱 목사가 회심하고 목사가 된 후 처음으로 발매한 미니앨범 'This is my' 표지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후원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현교수(에스대교회), 송정영목사(복음선언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대교회), 신원익목사(복음선언대 대표), 유관지목사(동일교회),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판권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율법이다.

* 책크라우드: GBMW 모든 기부금은 세무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담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k@gmail.com

“건강 보험료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혜택은 골고루 받는 아주 괜찮은 헬스케어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벌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ltrua HealthShare

프로그램	Complete (컴플릿)	Super(수퍼)	Essential(에센셜)
1인	\$220.00	\$165.00	\$50.00
2인	\$440.00	\$330.00	\$100.00
3인	\$660.00	\$495.00	\$150.00
본인부담금	\$500/year	\$500/year	\$7,500/year
지원금	\$2 Million	\$1 Million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입원, 수술 건강검진(\$1,000)	의사비, 검사비, 치료 응급실, 입원 건강검진(\$500.00)	응급실, 수술, 입원

Altura 는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로서 그동안 수만의 회원들의 의료비 지원을 해온 건실한 단체입니다. 이번에 한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회원들을 위해 더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한달에 \$165로 최고 1백만불까지 지원, 의사방문, 검진, 검사, 입원, 수술까지 해결!

- ☑ 의료비 신청 본인이 하지 않음
- ☑ 각 플랜: 응급실 사용 가능
- ☑ 한국 병원에서도 혜택
- ☑ 비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64세까지)
- ☑ 장례비 보조
- ☑ 그룹 플랜도 가능

•한인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인지원센터 Tel : (714)738-1234 Fax : (714)738-1238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email: info.primeh4@gmail.com

문 의: 티나 정(tchong.prime@gmail.com)
그룹문의: 스티븐 정(schong.prime@gmail.com)

*Prime.ahs.family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및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72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보내온 선교 소식을 접하며”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김세현 선교사 내외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 결정을 하고 필자를 찾았을 때가 어느덧 15년이 넘어서고 있다. 지난 15년간 선교 현저에서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교사 내외께 감사의 마음이 크다. 김 선교사의 성품은 유머스러우면서 강직하고 온유하면서 저돌성이 있는 분이다. 사모인 노 선교사는 온화하고 차분한 타입이라 두 분이 참 조화가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했다. 15년 변함없이 사역하는 그분들의 선교지 소식은 언제나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 이번 여름을 지내며 선교지 소식이 왔다. 그대로 내용을 옮기겠다.

“... 참 먼 곳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교회 현지인 지도자들과 한국 방문계획을 오랜기간 기도 준비하며 진행했습니다. 올 여름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해 그 일정이 몇 차례 연기되다가 결국엔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이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 교회 방문을 기대하며 전통악기로 서로 다른 부족 언어를 통합하여 찬송도 준비하고, 간증 및 현지소식 등을 나누고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 모든 계획이 취소되자 모두가 안타까워 하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의 상황이 얼마나 더 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선교지 소식은 더욱 은혜로 풍성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우간다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후원 동역자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의 선교지 소식이었다.

김 선교사는 현지의 각 지방에 교회 개척을 주력한다. 사모 노 선교사는 어린이와 여성사역 전문가다. 목회자가 없는 지방 교회가 많아 그들을 방문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을 심방하고, 구제하며,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한다. 열방에 흩어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열방의 선교사들이 오늘도 팬데믹을 이겨내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하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의 필요를 위해 후원하는 후방의 교회들이 연일 생거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은 한국대로 초정해 주었던 교회들마다 안타까워 하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방문할 우간다 현지 지도자들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간식이나 선물, 옷가지 등을 모두 다 소포로 부쳐 그분들께 전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방문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세워두었던 예산을 모두 송금하여 그분들을 위한 헌금으로 보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연합으로 음악예배를 준비했던 대구의 한 교회에서는 크로마 하프 10대 등 준비했던 모든 악기를 선교지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들을 현지 지도자들에게 전했다니 이렇게 큰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 분들과 만나게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며 그들은 더욱 감사하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필시 우리의 계획을 취소케 하신 하나님의 더 깊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는 마음이 커집니다.

앞으로 팬데믹의 상황이 얼마나 더 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선교지 소식은 더욱 은혜로 풍성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우간다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후원 동역자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의 선교지 소식이었다.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8) 좌절극복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외적인 문제와 난관도 극복하기 어렵지만 내적인 문제인 육체적 전신적 장애는 자신과의 싸움이라 더 어렵고 힘듭니다. 생득적 장애도 극복하기 어렵지만 살다가 당하는 장애는 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갑자기 장애인이 되어 느끼는 절망감이 클 것입니다. 좌절감을 헤치고 장애를 극복하는 삶의 쾌감은 또 다른 차원의 행복입니다. 좌절을 이기는 행복을 가꾸세요!

향년 76세로 사망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재 물리학자로 우주론에 기여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스티븐 호킹 박사를 생각하면 휠체어에 앉은 뒤 틀린 몸이 기억납니다. 박사는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이른바 '루게릭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병에 걸렸지만 55년간 생존한 최장수 루게릭 환자였다고 알려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스티븐 호킹의 경우를 '의학계의 기적'으로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63년 당시 21살에 루게릭병 발병 확인 후 스티븐 호킹은 2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다. 하지만 호킹박사는 그후 무려 55년을 생존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루게릭병을 앓았던 스티븐 호킹이 어떻게 이토록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세계 루게릭협회 최고 의학자인 루시 브루이즌 박사의 말을 전합니다. 브루이즌 박사는 “스티븐 호킹의 수명은 예외적이다. 나는 루게릭병에 걸린 후 그저럼 오래 산 환자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옥스퍼드를 3년 만에 마치고 스무살에 케임브리지대학원에 진학할 때만 해도 그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선수로 활약할 만큼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케

임브리지 재학 중에 이유 없이 자주 넘어졌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그를 전문의에게 데려갔고, 마침내 근육이 점점 수축되어 심장근육에까지 이르면 사망하는 루게릭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건강상태가 악화될수록 더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예견했던 우주 '특이점'의 존재를 스티븐 호킹 박사는 스물세 살 때 박사학위 논문에서 증명했습니다. 서른두 살 때는 영국 학술원의 최연소 회원이 되면서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77년에는 케임브리지대학의 중력물리학 정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기관지 제거수술을 한지 3년 후인 88년 호킹 박사는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발간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20개국에서 1천만 권 이상 팔렸으며 미국 베스트셀러 차트에 55주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으면 어떤 기분인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 호킹은 별다른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살려주고 내 상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실제로는 못하는 일도 별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호킹박사는 스스로 정상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장애를 극복한 영웅입니다. 독일의 루즈벨트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내무장관과 집권당의 원내총무를 지낸 볼프강 쇼이블레입니다. 연방특임장관, 총리부 장관, 내무장관을 역임했으며, 1991년~2000년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 연방의회 의원단장, 1998년~2000년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의 당수를 지냈습니다. 그가 기민당 원내총무로 선출되던 날 콜 수상은 휠체어를 타고 회의장을 나오는 쇼이블레의 손에 미국의 옛 대통령 루즈벨트의 자서전 한 권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 일이 화제가 되어 그는 독일의 루즈벨트로 알려지게 됩니다.

쇼이블레가 척추장애인이 된 것은 1990년 한 정신병자의 저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부터입니다. 당시 그는 승승장구하던 내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저격 5일 후 의식을 되찾았으나 의사는 그에게 척추장애인이임을 선고합니다. 그로부터 그는 최소한 2년은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직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자리를 위해 그는 짐부실 책상의 서랍을 톱으로 잘라내었고, 빈틈없는 장관직을 수행합니다. 그의 정계복귀는 그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독일인들 사이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생이 만나는 많은 난관 중에 건강하게 살다가 당하는 장애가 가장 불편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좌절 그리고 낮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자괴감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을 거부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루는 성취와 행복감은 차고 넘칩니다. 장애를 극복하며 이루는 행복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전하는 감동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인생가운데 만나는 문제와 난관을 극복함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사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코어와 빈곤 인권을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17) 백만인 구령운동-민족복음화운동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에 1903년에 원산 부흥을 주셨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을 이어서 부여주셨다. 평양 대부흥의 열기가 식어가지 1909년부터 1910년까지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는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민족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이었다.

길선주 목사는 1910년에 미국에 있는 조지 매쿰 선교사에게 이런 감격스러운 보고를 보냈다.

“나는 당신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그 영광의 현시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대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모여 돈을 가지고와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돌리며 전도합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년 소녀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충만한 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야기를 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간청합니다. 어제까지 불과 3박 4일 동안 약 400명이 그리스도를 새로 영접하였답니다. 그 몇몇 사람은 어린 소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죄를 깨달았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그의 은혜의 때에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모두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보호조약에 이어 1907년에 고종황제까지 퇴위시키자 조선은 위기를 극복할 도움받을 길이 이제 하늘밖에 없었다.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 기독교에 있다고 확신한 이들은 민족복음화를 염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백만인 구령운동이 시작되었다.

1909년 여름 송도에 주재하는 남감리교 선교사들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릴 원동력은 영적 각성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영적 각성을 위해 7월 12일부터 일 주간 기도회를 가졌다. 이후 9월에 열린 감리교 선교 연회에서 스톱스, 갬블, 리드 등 남감리교 선교사들은 이 나라에 다시 성령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한다며 2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 줄 방안을 했고 남감리교 선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만 영혼을 그리스도께!” 구호를 정하고 민족복음화 운동에 매진하기로 결의한다. 이어 10월 8-9일에 열렸던 복음주의연합공의회는 남감리교의 20만 구령운동을 받아들여 다시 “100만 영혼을 그리스도께!”라고 확장한 전도운동을 결정하고 이 운동을 1910년 10월 9일까지 1년간 매진하기로 정했다. 이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선교사 개입을 위원장으로, 언더우드와 밀러와 벵커를 위원으로 위촉했고, 각 교단에서는 특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초교파적인 대규모 전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선교사들은 한국의 기독교인을 14-20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100만 명 구령운동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전도운동이었다.

백만인 구령운동의 전개와 실천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한 민족복음화를 위해 당시의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지도하에 특별기도, 전도집회, 축조전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매진했다.

1, 특별기도회

이길함 선교사를 이어 평양 장대현교회의 담임이 된 길선주 목사는 민족복음화운동을 위해 같은 교회

박치록장도와 함께 조용히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기도가 광고되자 600-700명씩 매일 모이게 되었고 이 새벽기도회는 사경회와 전도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급속히 한국교회에 확산되게 된다.

이 기간에 또 민족복음화를 위한 금요 심야기도회가 시작되어 정착이 되었고, 어떤 교회들은 주일 준비를 위해 토요일에 모여 기도회를 가진 후 두 명씩 짝지어 마을로 들어가 전도한 후에 주일에 사람들을 교회 예배에 초청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정착이 되었다.

2, 대중 전도집회

평양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전도집회가 열렸다. 이무렵 마치 외국의 수많은 부흥사들이 입국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윌버 채프만 목사, 찰스 알렉산더 목사 부부, 로버트 학스니, 데이비스와 그의 어머니, 놀튼 부부, 뉴욕대학의 총장 헬리 맥크레큰, 아더 피어선 박사, 볼티모어 여자대학의 총장 가우처 박사 등... 한국인 목사 가운데서는 길선주 목사와 김익두 목사가 강사로 많이 활동했다.

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결신했는데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렸던 3주간의 전도집회에서는 700명이 결신했고, 평양 남산현감리교회에서는 한주만에 100명이 결신했다.

3, 날 연보(Day Offering)를 통한 축조 전도와 전도지 나누어주기

백만인 구령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독특한 전도방법은 날 연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전도지와 마가복음서를 배포한 일이었다. ‘날 연보’란 전도운동을 위하여 물질 연보와는 별개로 자신의 시간을 연보 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신자들 간에 큰 호응을 얻어 평양에서만 천명의 신자가 2만 2천 날을 연보 했고, 황해도 재령에서는 1만 날이 연보 되었다. 이렇게 연보 된 날이 전국적

으로 10만 날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날 연보에 대해 선교사들이 영문으로 발간했던 월간지 ‘The Korea Mission Field’에 아래와 같이 실렸다.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합 10만 날을 전도운동에 바쳤는데, 지난겨울에 사용한 일수는 7만 6천 날이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전도인들이 가가호호 심방하는 활동과 대 집회에 출석한 구도자들과 개인적 접촉을 위해 한 달을 온통 바쳤다. 3백만 장의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고, 신자들이 돈을 내고 70만 권의 마가복음을 구입해 불신 동포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면서 복음서를 읽고 예수를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치고 심방받지 아니한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 심방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 천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

4, 제1차 YMCA 학생사경회

백만인 구령운동 기간에 열렸던 많은 집회들 가운데 하나가 민족복음화의 열정이 가장 뜨겁게 불타고 있던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YMCA 학생사경회였다. 1910년 6월 22일-27일 기간에 서울 북부에 위치한 오래된 사찰인 진관사에서 열렸는데 언더우드, 이상재, 김규식, 길선주, 에비슨, 왓슨 등 지도적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이 강사로 나서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민족에 대한 소망과 환상을 불어넣어 주었다. 일제의 침략 앞에 종교들도 연합한 것이다. 스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방을 양보했고 염불과 목탁소리 대신 찬송과 기도 소리가 절에서 울려졌다.

비록 10개 대학을 대표하는 46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소규모의 사경회였지만 한일합방으로 인해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탁월한 학생들을 훈련시켜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만들려는 소중한 집회였다.

오전에는 선교사들이 이끄는 성경공부와 특강이 열렸고, 오후에는

팀워크를 다지는 다양한 운동경기가 진행되었다. 밤 시간에는 기독교 민족주의에 불타고 있었던 이상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의 강의는 대학생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참가자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모두 뜨겁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만인 구령운동 결산

1, 원산 부흥이나 평양대부흥에 비해 노력에 비해 수적 증가는 적었지만 과안련 선교사의 표현을 빌리면 ‘산골짜기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접촉해 보지 않은 마을은 거의 없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교회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2, 민족의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민족의 에너지를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3, 국가적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던져주었다.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다”라는 말이 퍼지게 되었다.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순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국인 절반 이상 “예수는 위대한 교사였지만 신은 아냐”

기독교 교리 배워야 할 절박한 필요성 시사

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절반이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고 3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리고니어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ies)와 함께 격년에 걸쳐 실시하는 '2020 신학 동향(State of Theology) 예비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52%가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였으며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또 복음주의자 가운데 약 3분의 1(30%)이 "예수는 위대한 교사였으나 신은 아니다"라는 진술에 동의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복음주의자 가운데 3분의 2는 "예수는 위대한 교사였으나 신은 아니었다"라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연구에 참여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65%는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성경과 기독교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쳐왔다.

이 조사는 복음주의자 630명을 포함한 미국 성인 3천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

시됐으며 전체 보고서는 오는 8일 발표 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복음주의자들은 다음 4가지 진술에 강력하게 동의한 사람들로 정의됐다. 첫째, 성경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최고 권위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로 인한 형벌을 제거 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다. 넷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대가없이 받는다.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최고 학술

책임자이자 개혁 성경 대학(Reformation Bible College) 스테판 니콜스 총장은 "신학 동향" 조사에서 나온 이같은 통계는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많은 미국 기독교인과 교회가 수십 년 동안 표명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문화가 점점 더 도덕적 나침반을 포기함에 따라 복음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교인들조차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절대적 표준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사치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우리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자신있게 교류하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구원의 역사를 두려움 없이 증거 할 때"라고 강조했다.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신학 전문가들은 복음주의자 가운데 존재하는 이같은 혼란에 대해 지적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리를 배워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올해 초 실시된 바나 리서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51%만이 하나님에 대해 "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완전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우주의 창조자"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1991년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3%가 이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대선 앞두고 13,000여 교회에 목회 서신 보내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회 모습. ©하나님의성회 제공

“공의와 자유 수호하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가 “분열을 극도로 조심하고 영적인 일치를 유지하며 성경적 공의와 자유를 수호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2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교단 총회장 덕 클레이(Doug Clay) 목사는 최근 13,000여 회원 교회 앞으로 보낸 목회 서신에서 “정치와 양극화는 자연적으로 함께 간다. 2020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으며 심지어 일반적인 결정으로 전락했다”면서 “일치를 가져다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내부에 분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분열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멸하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클레이 목사는 “변화하는 정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문화 속

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가 아닌 전도, 예배, 제자화, 그리고 구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91%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사이의 분쟁이 거세졌다고 생각한다”는 2019년 10월 퓨리서치연구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응답자들은 ‘반대 당원들을 향한 당원들의 부정적 감정을 포함한 분열과 증오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클레이 목사는 “다른 이들은 끝없이 분쟁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해도, 교회는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일로 드러나야 한다. 뉴스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전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동기로 삼으라”고 했다.

클레이 목사는 예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해답이 정치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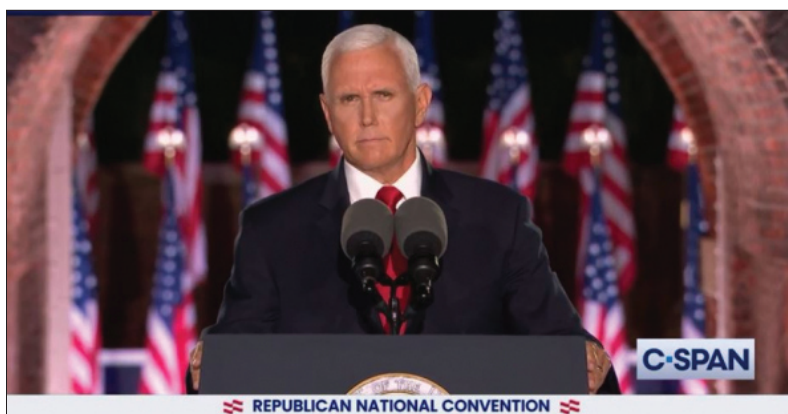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교회들과 관계자들이 대선 투표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슈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클레이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부터 지속되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시위 등 특정 이슈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교회가 주목해야 할 5가지 장기적 이슈로 ▲성경적 정의 ▲종교 자유 ▲생명의 신성함 ▲결과와 가정 ▲대법관 지명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클레이 목사는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분의 우선순위가 되고,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이 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차기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폭스뉴스 캡처

펜스 부통령 자유 수호 강조 “우리는 트럼프의 4년이 더 필요해”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차기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자유 수호를 강조하며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2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부통령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다.

펜스 부통령은 수락 연설에서 “조 바이든은 우리가 ‘어둠의 계절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어둠을 보는 곳에서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을 본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미국을 믿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도전에 응하고, 적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수호할 미국인들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나태, 교육, 이민 등을 포함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며 “미국은 지금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급진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됐다. 더 보수적이 될지, 더 진보적이 될지, 더 공화당이 될지, 더 민주당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선거는

미국이 계속 미국으로 남아 있느냐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방식으로 일한다. 확실히 모든 것을 흥미롭게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도시(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행가이다. 그는 연방법원에 200명 이상의 보수적인 판사를 임명하고 생명권을 지지했다. 또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어떤 도전에도 맞서고 적을 물리치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을 더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가 여러분을 위해 싸웠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먼저는 기독교인, 다음은 보수주의자, 그 다음은 공화당원”이라며 정치인보다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더욱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술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 Tel. (213)703-0240
 For the Spirit & Body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취장암 진단 팀 켈러 “암과의 투쟁에서 진전... 하나님 찾고 의지해”

최근 취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미국의 팀 켈러(Tim Keller) 목사가 “암과의 투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 분을 의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팀 켈러 목사

2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은퇴목사인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친구들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한다”면서 “6차 취장암 항암 화학 요법 치료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부작용이 있지만, 의사들은 (내가) 치료를 아주 잘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심각한 정도로 쇠약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일과 사역을 할 수 있다”면서 “주치의와 만나 화학 요법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며칠전 찍은 스캔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팀 켈러 목사는 “스캔 분석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크기를 줄이기 위해 화학 요법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했다.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게 하고 죄악에서 더 많은 자유를 주셨으며, 그분의 말씀에 더 많이 의존하고 더욱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팀 켈러 목사는 지난 2002년 갑상선암으로 투병한 바 있다. 그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Uncommon Ground)이라는 저서를 발표했다. 이 저서에서 팀 켈러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그들 주변의 분열된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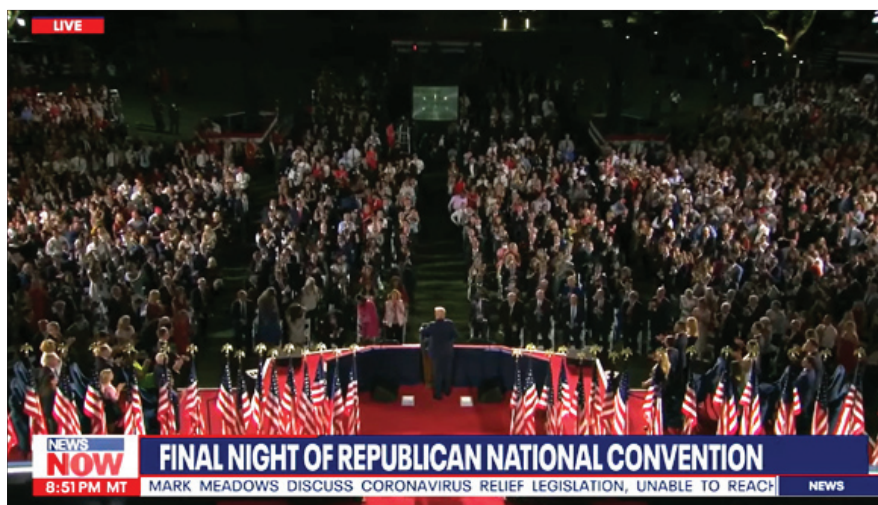
계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올 초 CP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를 통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시험은 몇 달 후,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드러났을 때 올 것”이라고 말했다.

팀 켈러 목사는 세속주의자와 기독교인 모두 미국 역사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속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공헌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반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노예제나 인종차별과 같은 불의가 존재함에도 과거에 대해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미 복음주의자들, 공화당 전당대회서 폭도들로 위협 받아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Fox News 보도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을 수락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퇴장하는 과정에서 백악관 주변에 몰려온 시위대의 폭력과 폭언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1500여명의 청중들 가운데에는 노인인 장애인도 포함하여 100여명의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다.

이날 참석한 교계 인사에는 젠테젠 프랭클린(조지아주 프리 채플), 에드 영(텍사스주 펠로우십 교회), 잭 그레이엄(프레스톤우드 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델리스 제일 침례교회), 해리 잭슨 주교(매릴랜드 호프 크리스천 교회), 새뮤얼 로드리게스(내셔널 히스패닉 크리스천 지도자 의회 의장), 랄프 리드(신앙과 자유 연합 의장) 목사와 라디오 진행자인 에릭 메타쿠스 등이 있다.

저명한 종교 자유 옹호자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신앙 고문 역할을 맡고 있는 조니 무어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자신도 폭동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무어 목사는 “폭력적인 선동가들은 자정이 다 되어가자, 시 관할구역인 백악관 출입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들은 폭력, 폭언, 신성모독적인 구호, 증오와 편협함 등으로 위협했지만 우리를 겁 주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야말로 그들은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바로 그 요점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인 류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당시의 위협과 공격 사태에 대해 방관했음을 지적하며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들었다. 끔찍한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우리가 듣고

싫어하는 평화로운 시위자들의 목소리를 빼앗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랜드 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와 그의 아내 입을 알아보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100여명의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폴은 다음날 아침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고함을 지르며 우리를 협박하고, 죽이려 했고, 해지려고 했다”며 당사를 회상했다. 여기서 말한 그녀는 올 해 3월 경찰의 무리한 체포 시도 과정에서 총을 맞아 숨진 흑인 여성 브레onna 테일러(Breonna Taylor)를 가리킨다.

미국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있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선거 출구 조사에서는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트럼프 후보 지지율은 80%에 달했다.

이날 70분동안 이어진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주제 중 하나인 낙태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며 “바이든 부통령은 자신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을 갖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이끄는 당은 출생의 순간까지도 무방비인 아기들에 대한 ‘극단적인 후기 낙태(extreme late-term abortion)’를 지지한다”며 “오늘 밤 우리는 태어난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당한 경찰관들을 추모하며 “우리 행정부는 항상 법 집행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있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김유진 기자

교회 찾기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교육부 예배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금요일새와 살 공부
토요일침례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전 7:00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초대주일(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0.1만2세대를 섬기며, 이만2세대를 치료하며, 신교령영광을 증언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gen Edgen)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수,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수요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쪽 옆에)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수) 오전 5:30
리전예배(델리안예배) (소매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수) 신도모임과 만민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수,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00(토) 6:00

안 한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교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느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종교개혁의 날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북한 지하교회에 4대 걸친 신앙 이어져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자유북한TV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단체인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4대에 걸친 간증을 소개하며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흑암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이야기”라며 다음의 간증을 소개했다.

비밀 크리스천들이다. 북한 정권은 1958년 이전에 확인된 기독교인들을 시골과 탄광으로 추방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들을 감시하고 박해했다. 더 험악하고 살기 힘든 산간지역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이삭 목사는 추방된 여러 지역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다시 시작했다. 열악한 환경과 빈번한 사고로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그 탄광에서도 복음은 왕성하게 뻗어나갔다.

1세대 :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20세기 초 북한 기독교인 1세대이다. 그는 1907년 평양대부흥을 경험하였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성경학교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머물렀고 그는 신학교를 또 세웠다.

3세대 : 야곱 이야기

야곱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약질 반동분자’로 분류되어 일반 성도들로부터 격리되었다. 어느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에, 야곱 가족을 수십 년간 감시해오던 한 당 간부가 폐결핵에 걸렸다. 야곱은 그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간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헌신적인 돌봄에 감동을 받은 그 당 간부는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와 함께 그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다. 두 사람은 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 신학교를 통해 뛰어난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짓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서 교회 건축을 추진했다. 그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교회로 분립했다. 그 지역의 장로교 선교사들은 아브라함과 협력하여 1930년대까지 계속해서 여러 교회들을 더 세울 수 있었다. 그는 감리교 선교사들과도 협력하여 그 지역에 감리교회가 세워졌다.

4세대 : 요셉 이야기

요셉은 야곱의 친자식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다. 야곱은 1990년 경에 요셉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식량 위기를 맞이했다. 지하교인들은 자기들의 음식을 나눠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2세대 : 이삭 이야기

휴전이 되면서, 북한 정권은 1854년, 광범위한 교회 박해를 시작했다. 지역의 교회들도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다. 이삭은 양떼를 데리고 평양으로 가서 사역을 계속했다. 성도들은 가정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다. 세상 정부에 버림을 받았으나, 천국의 시민으로. 1959년 북한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생겨났다. 북한 정권에 알려져 단속에 걸린 크리스천들과 숨어들어간

오픈도어즈는 “그북한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남겨 놓으신 믿음의 그루터기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주일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교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주간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리제물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10:15, 오후 12:40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교동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700번째 언어로 번역된 성경 발간... 새로운 이정표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가나 사람들. ©세계성경번역선교회

“2025년까지 필요한 모든 언어로” 목표

최근 멕시코의 토착 부족인 후이폴족(Huichol)을 위한 성경이 수십 년 만에 번역을 마쳤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는 전 세계 언어 중 700번째로 추정되는 성경 번역본이다. 위사리타(Wixaritari)로도 불리는 후이폴족을 위한 신약성경은 1968년에 완성되었으며, 반 세기 동안의 번역 작업을 거쳐 지난달 10일 구약성서 번역본이 출간됐다.

사하는 57억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언어로 성경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주목할 만한 숫자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 이사는 그러나 “아직도 약 15억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대략 (세계 인구) 5명 중 1명 꼴”이며 “그것이 전 세계 성경 번역팀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노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후이폴 부족의 한 일원은 “이제 완전한 성경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감격을 전했다. 초교파 비영리 단체인 ‘세계성경번역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 USA)’의 제임스 폴 전부서는 후이폴족을 위한 성경의 완성은 전 세계 번역가들의 엄청난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00번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발간된 것에 대해 “현재 700개의 언어를 구

폴 이사는 그러나 “아직도 약 15억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대략 (세계 인구) 5명 중 1명 꼴”이며 “그것이 전 세계 성경 번역팀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노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올해 완성될 다른 번역본으로는 말라위어로 번역될 엘모우(Elmowe) 성경과 티브어로 1964년에 번역되었다가 새롭게 편집된 유버전(YouVersion) 앱 두 권의 디지털 성경본, 그리고 나이지리아어로 출판될 아이게드(Igede) 성경이 있다. 아울러 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는 비전이 현실화되는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성경번역선교회는 2025년까지 필요한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신천지, 대학생 선교단체 CCC 위장 잠입 규탄한다



©성시화운동본부 제공

CCC가 “신천지 전국대학부장을 역임한 박수진 씨의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해 6월 CCC를 정복하라고 지시를 내린 후 지난 2학기에 신천지 신도들을 대학CCC에 위장침투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고, 위장침투자 명단을 입수했다. 정체가 드러나 퇴출을 시킨 경우도 있고, 코로나19사태로 정체가 드러날까 우려해 잠적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30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입장문 전문.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CCC 위장잠입을 강력 규탄한다

-신천지집단 전 대학부장 박수진 탈퇴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문-

한국대학생선교회 (이하 CCC)는, 지난 8월 26일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집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집단의 대학부장 박수진 씨의 탈퇴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집단이 CCC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신도 투입 및 정복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CCC는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만행을 지시한 이만희 교주와 그것을 시도한 신천지집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침투도 묵인하

지 않을 것이며 CCC 내에 신천지집단 소속 신도들이 발각될 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천지집단은 오래전부터 교회와 선교단체에 위장잠입을 통해 혼란을 야기해 왔지만 시의적절한 바른 대처를 해왔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각 대학 CCC에 위장잠입한 신천지집단 소속 신도는 총 45명으로 밝혀졌으며 일부는 초기에 발각되어 퇴출당했고 대부분은 지난 2월 신천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사태 이후로 연락두절이 되는 등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는 회원관리에만 전념을 기하고 이단사이비집단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 신천지집단의 위장 잠입활동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CCC는 1958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좋은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고 파송하여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30일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대표 박성민 외 전국 책임간사 일동,
김신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모범 되어줄 것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교총

한국교회 지도자 청와대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범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류정호·문수석 공동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흥정 총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소강석 상임고문, 예장 합동 김중준 총회장,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 기성 한기재 총회장, 기하성 이영훈 대표총회장, 예장 고신 신수인 총회장, 기장 육순종 총회장, 기침 유재철 총회장, 예성 김윤석 총회장, 예장 개혁 채광명 총회장, 구세군 대한본영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유낙준 의장주교 등 16명이다.

김동호 목사 “교회와 영업장은 다르다... 성경적인 사고방식 아냐”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김동호 목사가 30일 밤, ‘교회는 영업장보다 우월한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김 목사는 “개신교 교단장과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교단 대표 한 분이 교회를 영업장과 사업장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성과 속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대면 영업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영업장과 교회에 차이가 있을 순 없다. 영업장을 막으면 교회도 막아야 하고 교회를 풀어주려면 영업장도 풀어주어야 한다. 영업장은 풀어 주었는데 교회만 막는다면 건 종교 탄압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탄압을 이야기하는 건 내 보기에도 어거지”라고 했다.

또 “영업장과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라며 “그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며 그릇된 선민의식에 다름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김 목사는 “코로나 때문에 마음 졸이며 안절부절하는 우리가 섬기고 보호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교단의 대표라는 양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많이 부끄럽고 많이 속상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일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대형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행함으로 행함은 생애를 위해 생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복음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초등부
수요성령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사랑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9:00am
(유·초·중·고등부, 유·초·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세백예배 오후 8:00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 오전 6:00(화-금)
셀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45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중보기도 오전 9:00(목)

목요제네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별미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생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에배 오전 11:30(청년 영예)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세백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s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멀티미디어사역 세상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학적 접근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시도는 2010년 이후 디지털 문화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교회 내에서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디지털 세대들의 장점인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이 능숙하고 친숙하다는 장점에 큰 비전을 발견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방법을 연구해 온 것이다. 그래서 교회들은 발 빠르게 홈페이지를 통한 교회 소식과 예배 안내, 그리고 설교문과 영상을 게시하는 차원을 넘어 새신자 교육, 및 사이버 강의(교리교육, 인물, 책별, 주제별 등)를 이수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혹자들은 방송예배의 한계성과 인터넷예배를 위한 시설비가 만만치 않음을 지적을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교회들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소홀히 해오던 온라인 기술 접근에 대한 고민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혹자들은 방송예배나 영상을 인터넷에 내보내려면 적어도 기존의 시간에 약 세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교회들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라이브 예배의 수는 계속 진화되어 그 수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현재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많은 교회들이 Zoom, CiscoEx, GotoMeeting 등을 이용해서 예배와 모임을 갖는 교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가르쳐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교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고, 그 후 예배와 사역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COVID 19 사태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우리가 세상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유튜브를 이용한 멀티미디어사역” 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회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회중과 소통”한다는 의미는 기독교만이 아닌 비기독교인들과의 소통도 포함한다는 것에서 장점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 라는 멀티미디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유튜브”란 음악, 다큐멘터리, 강의, 영화 등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의 영상물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는 매분마다 약 500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새로운 영상물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는 나이의 장벽을 넘어 비교적 모든 세대가 함께 자신의 의견과 관심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50대 이상의 “유튜버”가 20대 이하의 “유튜버”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튜브” 라는 멀티미디어에 또 주목해 볼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독교인들과 교회들도 “유튜브”라는 멀티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 사태로 교회에 성도들이 모일 수 없게 되자 교회는 “인터넷 예배”를 통해 성도들과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현재 코로나19 으로 인해 교회들은 기존에 드리던 “교회당 예배”를 매우 급속도로 성도들에게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설교와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계 내에서도 “유튜브”라는 멀티미디어가 가진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연구하여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 그리고 신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천신

팬데믹(Pandemic)과 기독교의 부흥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회

200년 동안 초대교회는 3,172만이 넘는 막강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선교보다는 사회학적 이유에 있다는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스타크는 “기독교의 승리”(The Triumph of Christianity, 2011)와 “기독교의 흥기”(The Rise of Christianity, 1996)라는 저술을 통해 믿음으로 온역을 극복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그립니다. 4분의 1 혹은 3분의 1의 로마 사람이 죽어간 165-180년까지의 전염병에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황제가 죽어갔습니다. 한 세기 이후 251년에 발생한 유행병에서 로마 종교의 사제들과 귀족들과 평민은 살아있는 감염자를 버리고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을 피하는데, 그들의 종교와 도덕성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진노하는 신을 달래야 하는 그리스·로마 종교는 가난한 사람과 고난 받는 사람에 대한 자비와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였고, 병든 사람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부흥의 첫째 이유는 기독교인이 이 엄청난 재난을 넘어 치유와 소망의 삶을 살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미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독교의 부흥의 이유는, 기독교인이 가진 이웃사랑과 선행의 가르침은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봉사과 공동체적 연대성의 모범을 격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재난 속에서 오히려 높은 생존률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셋째,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통제력의 약화는 기존의 종교를 떠나는 심리적 자유를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질병에서 살아난 사람은 어렵지 않게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362년 황제 배교자 줄리안(Julian)은 갈라디아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당혹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버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경건한 갈릴리인[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지 살펴보라.” 이웃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행동은 결국 로마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팬데믹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의 위험에 따라 나누는 6단계 경고 중에서 최고 등급입니다. 그리스어로 판(pan)은 “모두”라는 의미이며, 데믹(demic)은 “사람들”(demos)이라는 의미로서 전염병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이 세계 전체에 퍼지지는 않았지만 광대한 지역에 퍼지는 경우를 “에피데믹”(epidemic) 즉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은 질병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퍼지는 것을 “엔데믹”(endemic) 즉 “풍토병”이라고 하고, 이러한 전염병이 하나 이상 겹쳐져서 발생될 때를 신데믹(syndemic)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제국의 초대교회 사기 150년의 0.07%에서 350년의 52.9%로 증가된 이면에는 전염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로마제국의 인구는 6,000만 명이었습니다. 150년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로마 인구에서 39,560명으로 집계되고, 숫자적으로 미미한 기독교회는 그리스·로마의 기존 종교와 비교할 때, 연약한 존재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러 이들의 사상을 뛰어넘음으로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주님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앞이나 총독 빌라도 앞이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이다. 자신을 시험하는 사단의 꾀계에 대해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도해버렸던 것이다.

주님은 이처럼 호불호를 좇아서 편 가르기를 좋아했던 분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원하시는 분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당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책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낙태나 동성애 또는 배아복제 실험 등 성경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일에 대해 분연히 항거해야 함은 물론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순종과 헌신을 다하되 비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는데 복음주의를 따르는 예수 중심주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을 지어 투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시편 저자가 시 62편에서 말했듯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시론

자유주의 신학 사상과 근본주의 신학사상... 예수주의로 돌아가라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담임

가라 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사회운동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독교 운동의 실체를 몇 가지 살펴봄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온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독교 운동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주의 신학 사상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18세기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기독교 신학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의 특징은 진보적인 사상의 바탕위에 지나칠 정도로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의 원리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윈이 진화론을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진전되었는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역사적인 기독교와 구분하여 신세계 기독교로 불리기도 한다.

자유주의에 뿌리를 내린 사상의 속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신앙의 초자연적 기초를 부정하는 가운데 세상의 합리성과 자연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과 교리보다는 인간의 그 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셋째, 기독교를 정의를 실현하고 성 평등과 세계 평화를 주장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타

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도덕을 회복하고 윤리를 실천하는 도구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속성 외에도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교리와 배치되는 문제로 인해서 정통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본주의 신학 사상

근본주의 신학 사상은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에 대응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의 토대를 세우려는 노력에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교리 수호 운동이다. 이 사상의 핵심적인 주장은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반 이슬람을 표방하며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척하는데 있다. 특별히 미국의 정가를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던 1950년대의 매카시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의 성경 읽기와 기도법을 법으로 금지하던 1960년대부터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근본주의 이념이 세력화되면서 정치집단과 연대를 하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우파적 성향을 지닌 이념집단으로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다. 언젠가 있었던 노르웨이의 연쇄테러를 통해서도 보듯이 이들은 정치세력과 결합할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의 현실을 보더라도 이들이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집단으로 성장하여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주의는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도피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소수자나 이슬람, 유대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일부 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종교 통합운동인 WCC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에 영향 받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수주의로 돌아가라

앞에 언급했던 두 가지 신학 사상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예수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 이러한 신학 사상들은 그 존재이유를 떠나서 사람들의 편에 따라 만들어진 신학 사상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시작한 사상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에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을 택하기에 앞서서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혁명가요 개혁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다. 그분은 철저한 율법주의로 무장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엘리트 집단과 수시로 부딪쳐야 했다. 당시 온갖 기독교를 누리던 유대 지도자들과 사상건대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에 만일 주님이 또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그들과 맞섰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오히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비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축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붓음
- 머리리 통증(열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골다공증,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장재호 목사의 은혜의 샘

넘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14-21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14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중략)...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내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종교 심리를 바탕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도 확실히 믿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미신적 기대 심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80-9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

에베소서 3장 1-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과분한 긍휼과 은혜로 택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양으로 구속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령을 주셔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며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 소망의 영원한 기쁨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의 복음을 성령에 이끌리며 땅 끝까지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알뜰하신 보살핌과 체험들을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세상의 기대와 꿈을 좇아 살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답을 위하여 봉사와 순종과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의 보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더 들어보낼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21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 고난도 참고 나가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멸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모든 모욕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은 언제나 내 편에서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며, 결국 복음을 통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 주신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17절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이 “카토이케오”는 잠시만 함께하고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부터 영원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보존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아 영적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죄인을 전도해서 예수 믿어 성령 받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성령체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 영혼은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도가 변화되면 직장 동료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구령성고를 위해 살아갈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긴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 너야말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애쓰고 있구나! 내가 너를 써야겠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너를 어디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 가서 성과를 올리도록 내가 도와 줄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인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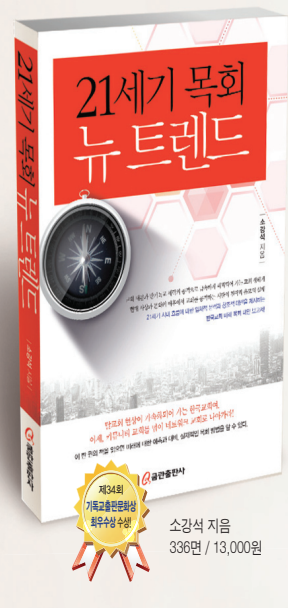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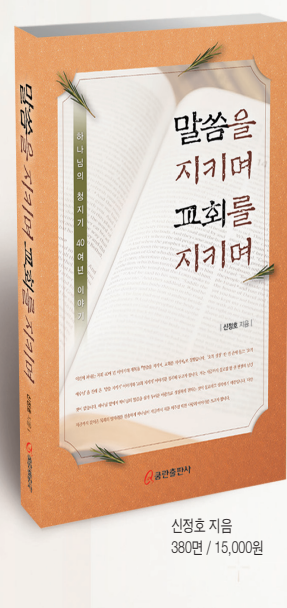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영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매년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찬양평행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장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절頂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군 능어촌 부원,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동문회장,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객원목사,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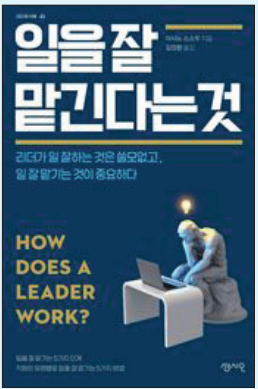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학 |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사랑과 신뢰로

크리스천 리더, 일 잘 하는 것보다 잘 맡기는 것이 중요



일을 잘 맡긴다는 것
아사노 스스무 | 김정환 역
센시오 | 228쪽

조직이 요구하는 리더의 능력이 변하고 있다. 리더가 일 잘 하는 것은 쓸모없고, 일 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일을 맡길 직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가 있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리더의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그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은 주도권 싸움이다. 주도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들은 시시한 농담으로 가정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랑 없는 주도권 경쟁의 결말은 불행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주도권 경쟁이 붙었다. 둘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신혼집을 정리하다 가벼운 다툼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것이다. 예비 신랑이 먹으려고 놔둔 컵라면을 예비 신부가 말없이 먹게 된 것이다. 예비 신랑은 화가 나 짜증을 냈다. 예비 신부도 남자의 반응이 맘에 들지 않아,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 버렸다.

사소한 다툼이 결국, 파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파혼하게 된 예비 부부는 결혼 비용 위약금 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갔다.

사과 한 번이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 큰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모두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다. 진짜 사랑은 주도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 주도권 연연 않는다
맡겨진 일 나누며 함께 일 해결해
맡기지 못하는 이유, 방법 몰라서

사랑 없는 리더는 주도권을 자신이 독점하려고 한다. 그러나 팀원을 사랑할 줄 아는 리더는 주도권에 연연하지 않는다. 맡겨진 일을 함께 나누며 일을 해결해 나간다.

과거에는 탁월한 능력으로 성과를 올리는 리더들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는 기업 환경 속에서 능력 있는 리더의 조건도 변하고 있다.

《일을 잘 맡긴다는 것》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리더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저자 아사노 스스무는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 강의하며 매년 1,000명 넘는 관리직 사원들에게 조직 매니지먼트의 방법론을 지도하고 있다.

저자는 일 잘 하는 리더보다 일 잘 맡기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한다. "능력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리더들도 대부분 너무 많은 업무를 혼자 떠안은 채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일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맡기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일을 맡기는 방법에는 정해진 이론이

없다. 상황과 패턴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을 잘 맡긴다는 것》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이 눈에 '일을 맡기는 데 서툰 사람'으로 인식되는 리더에게는 특징이 있다.

[유형1] 플레이어형 리더
'이 정도는 부하 직원이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 혹은 부하 직원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이 즐겁다.

[유형2] 소심 걱정형 리더
부하 직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신경 쓰여서 견딜 수 없다. 혹은 부하 직원에게 수시로 보고를 받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는다.

[유형3] 방임형 리더
어떤 업무가 부하 직원에게 도전적인 것이고 어떤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업무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업무를 맡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하 직원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다.

[유형4] 속수무책형 리더
일을 맡긴 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지 않는다. 혹은 그에 맞는 대안을 미리 생각해두지 않는다.

[유형5] 부(不)적재 부(不)적소형 리더
조직이나 팀의 성공에 핵심이 되는 업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책임자에게 일을 맡겼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길 때도 고려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원칙 1: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하 직원의 능력과 경험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2: 100퍼센트의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칙 3: 한 번은 개선할 기회를 준다
한 번 기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해서, 그 사람의 성장이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원칙 4: 난감한 직원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는다
모든 직원을 균등하게 시간을 분배해서 지도한다는 것은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시간을 쏟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칙 5: 업무 성과는 인사 평가에 확실하게 반영한다
맡긴 업무에 관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확실하게 피드백을 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냈다면 잘한 점을 피드백하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과제를 피드백한다.

리더, 부하 직원 능력 활용해야
원만하게 맡기려면, 대화 필수
진짜 사랑은 주도권 맡기는 것

리더는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으로 부하 직원의 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직급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하 직원에게 원만하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저자는 대화가 없는 리더는 혼자서 업무를 끝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리더의 주요한 임무인데, 부하 직원과 업무에 대해 원만하게 소통하며 일을 맡길 수 없다면 혼자서 업무를 끝안은 채 무능한 리더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일을 맡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리더는 일을 맡기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고, 부하 직원은 맡겨진

일을 하면서 성장을 경험한다. 이런 선순환이 있을 때 맡기는 사람도 일을 맡은 사람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하는 것보다 맡기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이용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월급을 주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용당하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 중, 좋은 회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리더도 마찬가지다. 좋은 리더는 일을 맡기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일을 맡기는 사람을 세심히 살피고 그의 성장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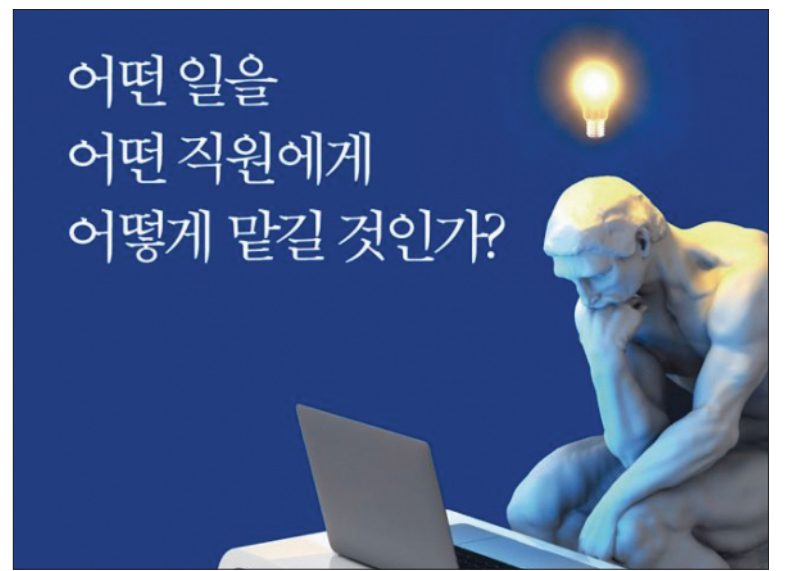
크리스천은 리더 자리에 설 기회가 많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리더가 된다. 리더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일도 잘 맡긴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도 잘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셨다. 좋은 리더 밑에는 좋은 팀원이 있다. 리더는 일을 맡기고 팀원은 그 일을 완수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의 주도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진짜 사랑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생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속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길 바란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 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에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